

2017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 9.(월) 15:00 ~ 17:00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체리룸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양호경(위원장), 백창현(부위원장), 박광우 위원
 - 학교대표 :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임수빈, 박종관, 홍지수 위원

2. 회의 내용

- 회의 안건
 -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회의 내용
 - 전차 회의록 낭독
 - 학교대표 발언 중 “12월 2일 이후에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음” 을 “12월 2일 이후에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으로 수정하여 접수함.
 -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외부위원 : 등록금을 경제논리로만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대학과의 등록금 의존율 등을 비교해볼 때 인하는 어렵다고 생각함. 그 동안은 국고출연금이 증가해왔기 때문에 학교의 원활한 예산운용이 가능했지만 올 해는 출연금이 삭감되었음.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1.5%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연금이 삭감

된 비율인 0.5% 정도의 인상을 제안함.

- 학생대표 : 등록금 의존율을 다른 대학들과 맞춰야할 당위가 있는 것은 아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논리를 고려하면 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 정부들 하에서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임.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함. 등록금이 인상되어 교육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었으나 여전히 국립대 법인으로서의 책무가 있음.
- 학교대표 : 서울대가 법인화를 하고도 세금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비판의 기사가 있었음. 특히 다른 대학에서는 서울대가 출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음.
- 학생대표 : 독일 대학은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저렴한데도 학생들이 인상 반대 시위에 나섬.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함.
- 외부위원 : 국고출연금이 삭감되었지만 운영비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 학생대표 : 201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세입이 과대, 세출이 과소 계상된 면이 있어 잔액으로 남는 예산이 있으며, 따라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임.
- 외부위원 : 등록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
- 학생대표 : 연구생부담금의 수입액이 입학금 수입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연구생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음. 연구생 혜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학교대표 : 연구생부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해당 부서에 알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학생대표 : 학교 측에서 관련 부서와 연결을 시켜준다면 좋겠음.

- 학생대표 : 수업료 4%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제안함.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도 규정 되어 있지 않는 등 산정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실비에 근거해 책정한 것이 아니라면 폐지되어야 할 것임.
- 학교대표 : 서울대 입학금은 실비적 성격의 수준임. 현재 입학금 관련 여러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 교문위에서 입학금 폐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입학금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대 차원보다는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될 사항임.
- 학생대표 : 서울대 입학금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다루는 것이 맞음. 산정근거에 따라 책정을 하고 근거가 없다면 폐지 및 인하해야 함.
- 학교대표 : 학생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여 입학금 문제에 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의함. 4월부터 운영하여 6월에는 보고서 등을 통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음.
- 외부위원 :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부는 동결 및 인하를 해도 대학원은 인상하는 경우가 여럿 있음.
- 학교대표 : 동결 내지는 약간의 인하를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고는 생각함. 다만 학교 예산 사정을 감안해볼 때 대학원 등록금 인상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함.
- 외부위원 : 2012년도에 대학원 과정은 동결하고 학부 과정만 인하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학부와 대학원을 함께 인하해오고 있음.
- 학교대표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수업료 0.36% 인하를 제안함. 작년보다 0.01%를 더 인하하려는 것은 학생 측에서 입학금 문제에 대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조하며 나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임.
- 학생대표 : 0.36% 인하에 합의하겠음.

3. 결정 사항

□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수업료, 전년 대비 0.36% 인하에 만장일치로 합의

□ 입학금 관련 검토 및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

- 4월부터 운영하여 6월까지 결론 도출

<폐회 : 17:00>

2017. 1. 9.